

社 說

포천은 하나다

재경포천시민회가 지난 4일 제22차 정기총회 및 포천인의 밤을 개최하고 '포천은 하나다'라는 명제를 분명히 하기 위한 새로운 집행부 출범을 축하했다.

이날 정동화 재경포천시민회장은 '포천은 하나다'라는 의식을 공유하기 위해 회의좌석 배치도 각 읍면동별로 앉으며 가장 멀게 느껴지는 관인면을 앞쪽 중앙에 좌석배치를 했다고 밝혔다. 또 각 읍면동별 회장들의 결속을 위해 다양한 회의를 통해 나름대로 역할을 다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오랜 역사를 통해 이어져온 포천동 중심의 사회가 갑작스럽게 '포천은 하나다'라는 명제에 충실하기 위해 하나로 결속되기를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님을 재경포천시민회는 통감했을 것이다.

특히 박운국 포천시장이 포천동 출신이 아닌 영북면 출신이고 포천시의회장도 포천동 출신이 아닌 화현면 출신이라는 점 등이 그동안의 포천동 중심의 포천사회의 편향된 시각을 교정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경포천시민회가 추진해온 '포천은 하나다'라는 의식의 공유사업은 큰 의미가 있다.

정동화 회장은 신임 이문용 회장에 자리를 내주면서 능력의 한계에 있어 이같은 명제를 발의하는 것으로 그칠 수 밖에 없음을 밝히고 신임 회장을 중심으로 포천시가 21세기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같은 주문에 대해 이문용 신임 회장은 당당히 어조로 포천시민이면 누구나 출생년도를 따져 1년이라도 먼저 태어났으면 고향선배, 나중에 태어났으면 고향 후배로 인정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러 포천시민의 힘으로 포천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자며 3년동안 3억원을 모금해 장학회를 설립하였으며 이문용 회장은 매달 월급에서 100만원을 장학금으로 내놓았으며 보너스를 받는 달에는 추가로 기금을 내놓는 등 임기 동안 5천만원을 회장 1인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2억5천만원은 재경포천시민회 회원과 포천시민 등 다양하게 참여하여 1인당 1만원씩 장학금을 모금해 나갈 때 다같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문용 회장은 장학금을 100억원규모까지 늘어날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장학재단 구성은 포천시 이장협의회장과 농업경영인연합회장 등도 이사로 영입해 실질적인 장학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포천시민과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포천동 월아트홀에서도 임기중에 1회는 재경포천시민회 정기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임 이문용회장은 한 발 더 나가 '재경포천시민회'를 '포천시민회'로 개명해 포천시 발전을 위해 포천시민과 함께 포천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기구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이날 지난 24년동안 포천출신 정치계 거목으로 성장하면서 포천발전의 초석이 되어온 이항동 전 국무총리의 연설은 그동안 대통령에 대한 꿈을 이루지 못함에 대한 송구스러움을 표현하여 정치적으로 다소 멀어졌던 이 전 총리와 포천시민간의 마음을 하나로 이어주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 '포천은 하나다'라는 명제가 현실로 다가왔다. 이 현실이 지속되기를 바란다.

경기도 신설해야 한다 ①

세계평화와 인류의 번영시대를 열 경기도를 만들자

지난달 4일 의정부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가진 경기도부발전기획단이 기자회견을 갖고 2006년 지방선거 전에 경기도 신설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개발기획단은 여당인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번엔야말로 경기도 신설이 제대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부발전 주민들 모두는 환영의 박수를 보냈다.

아울러 하성관 행정자치부 장관도 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경기도가 신설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발언을 해 2006년도에는 경기도

도시사를 경기도부발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야당인 한나라당 홍문종 경기도당위원장이 경기도 신설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혀 경기도부발전 주민들을 기쁘게 하고 있다.

따라서 본지는 경기도 신설에 대한 당위성과 과제에 대해 시민단체와 전문가, 정치인등의 여론을 개제하여 경기도 신설을 준비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김창호 경기도부시대 상임집행위원

'홍익(弘益)!' 우리 겨레의 건국이념인 이 말의 뜻은 나의 이익,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통해 세상 사람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잘살며, 인류사화에 기여하며 살자는 것이다. 우리 겨레는 나의 이익이 소중한 만큼 타인의 이익과 사회의 이익을 존중했으며, 개개인의 성취를 통해 사회와 나라의 이상을 추구했다. 이처럼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국가를 통치했기에 일정한 복지사회를 유지하며 3000년 이상 조선, 고구려, 발해라는 이름으로 만주반도와 산둥반도와 연해주, 그리고 저 멀리 몽골과 원까지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와 겨레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총체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지도자들이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와 민족의 본질을 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 후에 꺼낸 가장 큰 정책은 "지방분권과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이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추구하는 '참여민주주의', '성장과 분배', '평화와 번영의 동반자시대'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홍익(弘益)'의 이상(理想)을 되찾는 것과 행정수도의 충청권이전 정책을 폐기하고 경기도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 민족의 건국 이념인 "홍익"의 기상과 문화가 가장 많이 남아 있는 지역은 포

천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부지역이다.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미군의 점령과 분단, 6.25 한국전쟁, 미군 주둔 등의 역사를 겪으며 경기도부지역만의 독자적인 문화와 지역주민의 자력은 소진(消盡)되었다. 하지만 포천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부지역은 서기 675년 신라 문무왕의 군대와 함께 30만 당나라 군대를 격파(매초성 승리)하여 당나라의 한반도 지배야욕을 분쇄시켜 발해의 건국을 이끌어 낸 곳이며 주역이다. 공예의 폭정을 무너뜨리고 고려의 건국을 이끌기도 하였으며, 소련과 중공의 전 세계 공산화 야욕을 분쇄시켜 3차 세계대전으로 치달던 한국전쟁의 종지부를 찍은 지역이다.

지금처럼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혼란한 상황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하려는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 수도 이전 비용을 마련하느라 경제는 더욱 더 어려워질 것이다. 수도를 이전하지 않으면서도 서울과 수도권 남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종로구와 중구만을 서울특별시로 남겨두고 인천시의 강남구, 도봉구 등을 비롯한 자치구뿐만 아니라 강원도의 철원군까지도 경기도로 환원한 뒤 경기도를 신설하는 것이다. 그래서 서울을 진정한 의미의 국가 수도 기능을 수행케 하고, 문제가 되는 서울의 강남지역은 경기도남도의 자치시로 환원시켜 특권의

식을 버리게 하여 진정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경기도를 설치하기 전에 모든 신규 국가사업의 중단과 종합부동산세 추진정책을 폐기하고 징세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전하는 세제 혁명을 이루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모든 국세를 없애고 각 시도에 분담금을 할당하는 제도로 바꾸는 것이다. 모든 징세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하고, 광역시와 도도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국가세금을 분담하는 것이다. 부자들이 많이 사는 시와 구에 많은 세금을 거두어 하여 도와 광역시에 부담하게 하고, 연천군이나 동두천시의 기업에는 세율을 낮추고 주민세는 면제하는 것이다. 그러면 연천군에는 조세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루어 인구가 늘어날게 될 것이며, 포천시와 같은 지역에는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 될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기업 경쟁력을 잃어 중국이나 동남아로 떠나는 기업을 우리나라에서 수용할 수 있으며, 국가의 균형발전도 가능케 할 것이다.

진정으로 지방분권을 이루고자 한다면 충청권을 "신행정 수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각 도와 시도 권한을 이양시켜 16개 또는 17개의 '지방행정수도'가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도록 하는 것이다. 각 지방자치

단체에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이양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며 특색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동남아나 중국보다 더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탄생하고, 미국보다 더 연구하고 공부하기 좋은 도시가 탄생하면 이민을 가는 사람은 살아지고 떠나지 세계의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역사를 경험으로 할 때 노무현 대통령은 신라는 반도의 끄트머리 경주에서, 고구려는 대륙의 끄트머리 평양에서 지금보다 더 넓은 국가를 경영하며, '참여민주주의', '성장과 분배', '평화와 번영의 동반자시대'의 역사를 가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동안 경기도부지역은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왔다. 이제는 세계에 마지막 남은 분단국가의 접경지역이라는 이미지가 벗어 나 세계평화와 민족의 통일, 그리고 인류의 번영을 주도하는 지역으로 거듭나야 한다. 학대에 버금가는 경기도부지역의 소외는 지난 반백년으로 족하다. 1천년 전 매초성 전쟁의 승리처럼, 반백년전 중공군을 한탄강에 수장시켜 3차세계 대전의 막은 것처럼 '경기도의 힘'으로 세계평화와 인류의 번영 시대를 열자.

박운국 포천시장 2005시정연설

제12회 포천시의회 정례회 시정연설

아서아 아트 페스티벌 · 해외바이어 초청 투자상담회 계획 발표

예산은 전년대비 3.27% 줄어든 2,567억 3천만 원으로 책정

박운국 포천시장은 6일 포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된 제12회 시의회 정례회 시정연설을 통해 ▲일류의 자치경영과 ▲풍요로운 문화복지 ▲친환경 지역개발 ▲도농복합 균형발전 등 4대 시정방침에 관한 2005년도 계획을 밝혔다.

박 시장은 내년도에는 시가 추구하는 문화관광 인프라구축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적극 추진하며 사회 복지확대 등 민생을 살리는데, 초점을 맞춰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먼저, "일류의 자치경영" 실현을 위해 행정기능의 실효와 조직 구조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기능·구조·업무처리 방향 등을 시민 맞춤형으로 정립하기 위해 시정전반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결과를 토대로 고품질의 기업형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행정과 마을정보사방방을 연결하는 지역정보화를 구축하고 민원처리 고도화사업을 통해 민원서류 간혹 및 발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시민맞춤 정보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계약업무 전면에 걸쳐 전자화를 시행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화현·포천·일동·영북면에 이어 산단동 주민 자치센터와 관인면 문화복지센터를 완공하고 운영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다카네정 공민건립"과 "한·중·일 국제소년단 문화교류협력 행사 개최"를 통해 국제교류의 폭을 넓히고, 특히 시민과 공무원·전문가로 구성된 연수단을 2개교 5개 도시에 파견해, 산·학·관·연의 실질적 국제교류협력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소개했다.

"풍요로운 문화복지"를 위해 박 시장은 올해 연인원 2만여 명이 관람하는 대성황을 이룬 반월아트홀이 시민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영화상영관"을 운영하고 야외광장을 이용한 "신나는 열린 야외공연무대"를 만들었으며, 포천시립민속예술단이 주민자치센터와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국과 일본 등 5개국과 우리나라의 예술인이 참여하는 "포천아시아 아트 페스티벌"을 개최해 남북단단의 현실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하고, 지역 문화관광 인프라구축의 일환으로 "포천명주축제"를 개발해, 명성산 역사속 축제와 더불어 각광받는 포천시의 2대 문화축제로 성장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시립 일동도서관과 관인도서관을 개관하고 영종어린이도서관과 소흘도서관 건립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12억원을 투입해 학교급식시설 등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시민과 함께 100억원 규모의 "포천시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등, 교육인프라 정진반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결과를 토대로 고품질의 기업형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포천체육공원과 소흘레포츠공원, 설운동 비유생태리 체육공원, 영북하수종말처리장 체육시설, 포천천 자전거도로 등의 건립과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확충서류 간혹 및 발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시민맞춤 정보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전국에서 두 번째로 계약업무 전면에 걸쳐 전자화를 시행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2005코리아오픈 포천 국제태권도대회"를 개최해 체육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포천시 인구의 4%에 달하는 저소득층과 3.8%를 차지하는 장애인 등은 물론 노인과 청소년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종합사회복지관과 청소년수련관, 노인복지회관, 장애인수용시설, 보훈회관 등을 조기에 완공하고 수화통역센터를 설치 운영하겠다고 경량도 8개소를 신축, 24개소를 보수하고 내촌·오가·영동보건지소를 신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특히 "신생아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65세 이상 노인세대 중 월 1만원 미만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포천시를 친환경적인 지역으로 개발해 나가기 위해 박 시장은 내년 1월까지 10년 앞을 내다보는 "포천시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완성하고 산정호수 종합리조트와 백운



박운국 포천시장이 제12회 포천시의회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계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영산단지과 산정호수 조각공원, 포천천 아트밸리 조성사업을 본격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또 한때 도시경관을 해친다는 비난을 받았던 에펠탑이 연간 6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프랑스 최대의 관광지였어 되었듯 관련 "페덱산을 넘어가야 이상의 인공폭포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소개했다.

관광개발의 실현을 위해 민간자본 및 외자유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박 시장은 이미 지난 10월, 5천여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여유진 스포스파월드"조성에 관한 의향서와 문화관광 및 체육산업에 100억 원 규모의 민간자본이 투자되는 의향서를 체결했고 100만명 규모의 "스키와 골프 복합리조트 관광지"사업도 제안을 받아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또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대화와 협력을 통해 이끌어낸 '반세교리 자원회수시설'은 2007년까지 267억 원을 투입해 추경장, 실내수영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겸한 친환경시설로 건립하겠다고 하며 "포천시 환경대상"도 제정해 자연환경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포천천과 영평천의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민자사업으로 83억원을 투입, 슬러지유동상 소각시설을 설치하고 일·이동과 내촌하수 처리장을 조속히 완공하도록 하였으며 2005년 4월에

한 박 시장은 이를 위해 "영북지방 산업단지를 조속히 완공"하고 대전 테크노파크 R&D산업 복합클러스터도 조성해 나가겠다고 소개했다. 끝으로, "도농복합의 균형발전"을 위해 박운국 시장은 시가 보유하고 있는 관광자원과 연계한 친환경 농업발전을 이루기 위해 "도리물 한방마을"과 "순두부 마을", "금동리 산촌마을", "해실 전통장마을", "구절초마을" 등 "농촌체험관광 지역특화농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사과와 포도를 선택형 맞춤농업사업으로 집중 육성하며, 홀스타인 품종회와 축산페스티벌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 특화상품인 '개성인삼'에 대한 남북공동제작사업을 추진해 농산물을 통한 남북교류 협력의 기틀을 다지고 농축특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품질인증 상표 관리조례'를 제정해, 우수상품 생산 및 판매를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관광사업과 연계한 '포천 농축특산물 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해 특산물 판매를 촉진하며 '자연체험형 농업목장 13개소를 조성'하는 등 보다 선진화된 농업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예산과 관련하여서는, 내년도 경기도 예산 축소로 도비보조사업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소의계축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지역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 농축산분야 지원사업 등, 잠재된 경기활성화를 위한 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박 시장은 800여 공직자와 함께 포천의 역사를 새로이 창조하겠다는 각오와 혼신의 노력을 더욱 강화해 포천지역 중소기업들의 상품을 전략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2005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및 투자상담회"도 개최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이제는 10년, 20년 후 포천시 성장의 원동력이 될 산업인프라 구축을 위해 매진해 나가자"라고 강조

김영복기자 best114@paran.com

정치활동 동향



이철우 국회의원은 지난 4일 서울 중구 행복웨딩홀에서 개최된 재경포천시민회 제22차 정기회의 및 포천인의 밤 행사에 참석해 선배들의 뜻을 이어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여는데 앞장 설 것을 다짐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박운국 포천시장은 지난 6일 포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된 제12회 시의회 정례회 시정연설을 통해 일류의 자치경영과 풍요로운 문화복지, 친환경 지역개발, 도농복합 균형발전 등 4대 시정방침에 관한 2005년도 계획을 밝혔다.



최대중 포천시의회회장은 지난 6일 화현면사무소에서 개최된 화현면장 이·취임식에 참석해 최익구 전 면장을 위로하고 강승봉 신임면장이 지역행정을 힘있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애써줄 것을 당부했다.



오병익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위원장은 경기도 의회에서 지난 7일 2005년도 경제전반에 걸친 예산안을 심의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은 서민경제 및 첨단산업과 중소기업육성 등에 역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이상남 경기도의회 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교육청 및 각 지역 25개 교육청을 심사하고 교육위 6조 7천억원에 대한 예산안을 검토하고 심의했다.



이병욱 포천시의회회원은 지난 2일 참수면사무소에서 기관단체장과 민남의 자리를 마련해 지역현안을 논의한 후 단체장들과 연천군 접경지역인 주원5리의 성탄절 기념 트리의 점등식을 가졌다.



강태선 포천시의회회원은 지난 6일 포천 반월아트홀 대극장에서 개최된 2004 포천시 자원봉사단체제 기념식에서 참석해 자원봉사 우수단체 및 우수자에 대한 상장을 실시하고 축제를 준비한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최병덕 포천시의회회원은 지난 3일 일동면 주민자치센터 준공식에 참석해 주민 및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센터의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강밀 포천시의회회원은 지난달 30일 포천문화원에서 실시한 포천시 문화학교 제1기 수료식에 참석해 우수수료자에 대한 시상을 하고, 수료생들에게 관내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함께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Subscription information for Pocheon News (포천신문) including contact details, address, and website URL.